

고통의 길

정난주길

'정난주 마리아묘'에서 시작해 '모슬포 성당'까지 이르는 순례길.

정난주 마리아는 신유박해(1801년)에 남편 황사영(알렉시오)의 백서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 대정에 유배, 추자도에서 아들 황경한과 생이별을 하는 슬픔 속에서도 이 고장에 신앙의 씨앗을 남기고 생애를 마쳤다. 대정현성의 성당과 돌하르방, 추사 김정희 유배지, 대정향교, 신축교안(1901년)의 유적 등을 만날 수 있다. 알뜨르에서는 비행장 활주로, 격납고 등 태평양전쟁 시기의 일본군 유적을, 셋알오름에서는 4·3과 6·25 전쟁 때 죽어간 희생자 유적 등을 지나 중일전쟁 이후 군사기지로서 중요한 거점이 되어 훈련병과 중국군 포로 신자들의 사목을 담당한 군사적 사연이 담긴 모슬포 성당에 이른다.



총 13.8km
정난주
마리아묘

시작
모슬포성당
마침



1952년 훈련소 내에 우리나라 최초의 군인교회인 강병대 천주교회가 준공, 군인과 인근주민, 피난민 등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다. 그러나 모슬포 지역의 기지촌화로 교우 수가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목이 필요하게 되자, 1952년 말 현 본당 소재지의 부지를 매입, 이듬해 완공하였다. 신축과정에서 중국군 포로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뜻에서 건축 공사에 참여했다고 하여 '통회의 집'으로 불렸다.



정난주 마리아 묘

제주목 관로로 유배된 정난주 마리아는 온갖 시련을 신앙으로 이겨 냈으며, 풍부한 교양과 학식으로 주민들을 교화시켜 노비 신분에도 불구하고 서울 할머니라 불리우며 이웃들의 존경을 받았다. 신양만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고 37년 동안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살다가 1838년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유해를 이곳에 안장, 신양의 증인으로 추모하고 있다.

대정현성과 돌하르방

조선시대 제주의 삼읍성 가운데 하나였던 대정현성의 성당과 성문 입구에는 소박하고 귀여운 돌하르방이 세워져있다. 1418년에 축조 대정현성은 둘레 4860척, 높이 17척, 치성6, 용성3, 문루 등으로 구성됐으며, 18동의 관아 건물이 있었다.



대정성터

(보성초등학교)

0.1km

0.1km

0.2km

0.6km

0.8km

2.0km

2.8km

1.0km

방사탑

0.8km

대정향교

0.1km

대정우물터

주사관/ 삼의사비

대정골의 유일한 농

유력한 명관이 추대되면

물이 막았다가도 용출되고

그렇지 못하면 용출되면

물도 막아버렸다.

유일한 위안으로 삼고

신양을 떠나자.

37년 동안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살다가 1838년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유해를 이곳에 안장, 신양의 증인으로 추모하고 있다.

이규석 삼부자 순교자묘

대정을 하모리 출생. 1900년 서귀포에 하늘성당이 설립되자 가족과 함께 천주교에 입교, 김원영 신부를 도와 대정군내 마을에서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였다. 1901년 신축교안때 고향 모슬포에 은거하다가 6월1일 이재수 진영에 잡혀 두 아들과 함께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이규석은 친족인 이재수의 배고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순교의 길로 기꺼이 나아갔다. 60년이 지난 1961년 후손들이 그의 순교를 기려서 무덤 앞에 순교비를 세움으로써 제주 교회의 표상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대정골의 유일한 농

유력한 명관이 추대되면

물이 막았다가도 용출되고

그렇지 못하면 용출되면

물도 막아버렸다.



대정골의 유일한 농

유력한 명관이 추대되면

물이 막았다가도 용출되고

그렇지 못하면 용출되면

물도 막아버렸다.



대정골의 유일한 농

유력한 명관이 추대되면

물이 막았다가도 용출되고

그렇지 못하면 용출되면

물도 막아버렸다.



대정골의 유일한 농

유력한 명관이 추대되면

물이 막았다가도 용출되고

그렇지 못하면 용출되면

물도 막아버렸다.

천주교 제주교구 순례길

바람속에 피어난 신앙의 꽃!
11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북상의 시간, 순례길



▶ 출발지 정난주 마리아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찾아가는 방법

- 제주시에서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평화로(제주 – 신평 – 대정) 버스 승차 후 신평 정류장 하차, 천주교 대정성지까지 약 19km 이동해야 하며 도보로 18분 정도 소요
- 서귀포시에서 서귀포 신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중문고속(서귀 – 유수암 – 제주) 버스 승차 후 도순정류장에서 하차, 도순정류장에서 서일주(서귀 – 화순 – 제주) 버스 승차 후 인성리 정류장에서 하차, 인성리정류장에서 천주교 대정성지까지 약 1.68km 이동해야 하며 도보로 25분 정도 소요된다.

▶ 종점에서 모슬포성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05) 돌아오는 방법

- 제주시 가기 모슬포성당에서 상모리 정류장까지 약 500m이동, 평화로(대정 – 덕수리 – 제주) 승차 후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
- 서귀포시 가기 모슬포성당에서 모슬포우체국 정류장까지 약 190m 이동 후 서일주(제주 – 한리병원 – 서귀) 버스 승차 후 신시가지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천주교 제주교구 순례길위원회

| 순례길 홈페이지 | www.peacejeju.net
| 천주교제주교구 홈페이지 | <http://www.diocesecheju.org>

※ 각 길의 리플릿은 순례길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순례길에는
제주천주교의 숭고한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 정난주 마리아묘 (시작)

★ 모슬포성당 (마침)

★ 스템프함 위치

● 모슬포성당 미사시간 : (064)794-207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영서중로 22
월요일 06:30 / 화요일 19:30 / 수요일 19:30 / 목요일 06:30
금요일 19:30 / 토요일 15:30, 19:30 / 주일 06:30, 09:00, 11:00

※ 미사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순례길 코스 |
김대건길 / 하느성당길 / 신축화해길 / 김기량길 / 정난주길 / 이시돌길

[출처]

모슬포성당

